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도시점

2018년 11월 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9.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1. 8.(목)	담당부서	기술규제협력과
담당과장	박재형 과장(043-870-5560)	담 당 자	이종민 주무관(043-870-5566)

국가기술표준원, 콜롬비아에 전기전자분야 시험 노하우 전수

- 한-콜롬비아 협력 강화, 국내 수출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 기대 -

□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전기전자분야 시험장비를 지원하고 시험인증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한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NYCE-Colombia*와 함께 9일(한국시간)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험장비 기증식과 시험소 개소식을 개최했다.

* 멕시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남미 지역 인증기관인 NYCE의 자회사로 2017년 4월 콜롬비아 인정기구(ONAC)로부터 에너지효율 분야 인증 권한을 획득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○ 이 날 행사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시행하는 '국제 사회공헌활동(CSR)사업'을 통해 전기전자분야 시험장비를 NYCE-Colombia에 기증했으며,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증한 시험장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로 했다.

□ 이번 협력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'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사업'*의 일환으로,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.

* 개발도상국이 국가표준, 법정계량제도, 제품안전제도, 시험·검사제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표준과 인증체계를 전수하는 사업

○ 콜롬비아는 전기전자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기술 규정을 제정했는데, 자국 내 지정시험소의 시험결과만을 인정하도록 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해 왔다.

○ 이에, 국가기술표준원의 '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사업" 수행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이 콜롬비아 사설인증기관(NYCE-Colombia)과 업무협약을 체결('17. 6.)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에너지효율 시험 성적서로도 가전제품과 조명, 전기장비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에너지효율 이외 전기조명 등 다른 영역에서도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콜롬비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"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동남아, 중앙아시아, 남미, 아프리카 지역 9개국에 한국형 표준·인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."라고 말했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종민 주무관(☎ 043-870-55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